

마르그리트는 폴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네.

“왜 그러니 아들이, 왜 너는 스스로 헛된 희망을 키워서
는 더 쓸쓸한 상실감만 맛보고 있지? 아무래도 너와 나의
인생에 감춰진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구나. 라 투르
부인 댁 아가씨는, 그 엄마 쪽 가문으로 보자면 아주 부유
하고 신분이 높은 집안의 일원이란다. 그런데 너는 어떠니.
너는 농사 짓는 가난한 여자의 아들일 뿐인데다가, 설상가
상 사생아로 태어났단다.”

이 사생아라는 말에 폴은 크게 놀랐네. 누가 그 말을 하는
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야. 폴이 어머니에게 그
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,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.

“너한테는 법률상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다. 내 어렸을
적 사랑에 빠져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
렀는데, 그 결실이 너였어. 내 실수 때문에 너는 친가가 없
어졌고, 내가 자책하는 바람에 외가도 없는 아이가 되어버
렸단다. 불쌍한 것, 이 세상에 나 말고는 다른 핏줄이 없구
나!”

그리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네. 폴은 어머니
를 품에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지.

“아아, 어머니! 이 세상에 어머니 말고는 다른 친척이
없으니, 저는 어머니를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. 그
렇지만 방금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!
이제야 알겠어요, 두 달 전부터 라 투르 부인 댁 아가씨가